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박 배 균**

Spatial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 Focusing on Place, Territory, Networks, and Scale*

Park, Bae-Gyoon**

요약 : 이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공간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적 관점과 지리적 인식론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이주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없음을 강조한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주요어 :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 초국가주의, 이주

Abstract : Criticizing the existing social science approaches to transnational migration for their ignorance of spatial perspectives and the resultant limit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rete process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ettlement,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spatial perspectives and geographical epistemology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d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migration.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at the process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cannot be solely understood in terms of 1) global capitalist restructuring and economic rationality, 2) the impacts of deterritorialized transnational networks, or 3) the operation of immigration regimes constructed at the national scale. Alternative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ualization of 'transnational space', which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o-spatial dimensions - that is, place, territory, scale and networks - that affect the process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coul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transnational migration.

Key Words : place, territory, scale, network, transnationalism, migration

1. 서론

흔히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이유들로 인해, 국민국가의 영역적 경계성이 약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경을 뛰어넘어 이동하는 자본, 사람, 물자, 정보의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인류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흔히들 세계화를

이야기 할 때는 다국적 기업의 출현, 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 투자의 증가, 경제적 공동체의 형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세계화 보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세계화의 모습은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들은 신문의 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액의 증가 소식을 듣거나, 자기 집의 가전제품을 해체해 그 부품들이 전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2-B00024)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geopbg@snu.ac.kr)

하면서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기 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그 전에는 책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외국으로의 이주를 실행하여 그곳에서 일정기간을 체류하고, 또 길거리에서 쉽사리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세계화의 진전은 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주가 점차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한 번쯤 외국에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길거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외국인들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이주의 시대를 맞아,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이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을 기존 사회 및 정치 공동체에서 통합해내고,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 집단들을 국가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보호해주는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철학, 이념, 정책 및 사회적 운동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Mitchell, 2004). 즉,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국내 적응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문화와 인종의 단일성을 너무나 당연시 하던 한국인들이 다른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그에 대한 해답을 '다문화주의'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다문화사회 건설'을 중요한 정책적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소위 '다문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공간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이민자의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간적 관점을 결여한 기존의 논의들은 대부분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국제

적인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건 속에서 행해진 개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세계자본주의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혹은 초국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진 사람의 이동과 정착 등과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의¹⁾ 함정에 빠져, 국가 차원의 정치, 사회, 문화적 조건과 제도적 환경에만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사회를 논함에 있어 대부분 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영역적 배타성을 줄인 다문화적 시민권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에 대해, 필자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그리고 다문화적 사회의 형성과정이 매우 뚜렷한 공간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어떻게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을지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이라는 4가지 차원의 공간성에 초점을 두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장소 중심적 성격, 2)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장소기반적 형성 및 발달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위와 실천의 장소의존적 성향, 3)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주와 적응 과정의 영역성, 4) 초국가적 이주와 적응 과정의 다중스케일적 특성이라는 4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구조주의적 접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이란 초국가적인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1) 경제적 필요에 따른 노동력의 수요,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2) 전지구적 차원의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 생산 동학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입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논의들로는 국제이주에 대한 1) 행위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자 중심 이론과 2) 구조중심 이론, 그리고 구조중심적 이론에 영향을 받아 거대 도시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이주의 문제를 설명하는 3) 세계도시론이 있다.

(1) 행위자 중심이론

행위자 중심 이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가족을 분석단위로 하고, 국제 이주를 개별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는 이론들을 지칭한다(설동훈, 2000; 전형권, 2008). 이 이론들은 국제 이주를 국내 이주와 같은 차원에서 파악하여,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지역간 차이를 인구이동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해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가난한 나라로부터 자본은 풍부하나 노동력이 부족한 선진산업국으로 국제이동이 일어난다고 이해한다(전형권, 2008, 267).

행위자 중심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인적자본론과 '이주의 신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이다. 인적자본론은 이주를 인적자본투자 현상의 하나로 개념화하여, 사람들은 교육, 경험, 훈련, 언어능력과 같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하여 고용이 가능하고 비용-편익의 계산에 의해 가장 큰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가정하는 이론이다(전형권, 2008, 267). 이주의 신경제학은 인적자본론과 달리 이주의 결정은 고립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가계와 공동체 등의 보다 큰 단위의 행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바라보고, 행위자들은 시장의 실패에 의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김용찬, 2006, 85). 특히, 저개발국에서의 송출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에 주목하면서, 국제적 이주를 개인적 차원의 결정이라기 보다는, 가족의 위기 분산전략으로 파악한다(전형권, 2008, 268).

국제적 이주를 바라보는 행위자 중심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국제이주를 개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로 파악하기 때문에(김용찬, 2006, 86), 개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구조적 요인과 이주자가 속한 국가와 이주 목적지 간의 역사적 특수성, 문화적 경로 등을 따라 이주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둘째, 국

제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 이주는 현실적으로 각국 정부의 출입국 제한과 같은 이동장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전형권, 2008, 268).

(2) 구조 중심 이론

국제적 이주에 대한 구조 중심 이론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하나의 구조화된 체계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이주를 발생시킨다고 이해한다. 특히 중심부의 자본투자에 의해 유발된 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인해 국제노동력 이동이 발생한다고 바라본다. 즉, 국제노동력 이동을 세계자본부의 발전과정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이다(설동훈, 2008, 16). 대표적 이론은 상대적 과잉인구론, 세계체제론, 노동시장 분절론을 들 수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론적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잠재적인 잉여 인구'와 '산업예비군'으로 존재하면서 노동력부족과 임금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가능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고 바라본다(김용찬, 2006, 88). 산업의 기술적 조직적 변화에 의해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 및 여성, 청소년, 자영업 등 임금노동자로 아직 고용되지 않는 잠재적 상태에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에 의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항하고 노동자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는데, 이들 거대한 노동예비군이 중심지로 흘러들어가 값싼 노동력 제공자로 기능하고, 동시에 유입국 노동시장에서 현지 노동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전형권, 2008, 269).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을 국제노동력 이동의 원천으로 파악한다. 특히, 세계경제 내에서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지역과 세력이 자본을 위하여 주변부 노동을 동원하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국제노동력 이동은 저발전 사회의 지역간 불균등발전에 대한 반응이면서, 자본주의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배 고리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다(전형권, 2008, 270).

앞의 두 이론이 자본주의의 축적 메커니즘과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매우 거시적인 입장에서 국제 노동 이주를 바라본다면, 노동시장 분절

론은 이주 대상국의 경제구조에 주목하여 국제이주의 원인을 설명한다. 특히, 국제노동이주를 단순히 후진국의 저임금이나 높은 실업률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주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바라본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는 자본집약적인 1차 부문과 노동집약적인 2차 부문 사이에 분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선진국 경제구조 내의 저임금, 불안정한 환경과 유동성 전망의 부재 등은 본국 노동력이 부차적 부문 보다는 자본집중적인 주요 부문에 집중하게 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부차적 부문의 노동력은 자연스럽게 이주민노동력에 의해 충당된다고 설명한다(김용찬, 2006, 85). 즉, 이 이론은 국제이주를 선진국 노동자들이 기피함에 따라 생겨난 노동시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국가간 노동력 총원정책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전형권, 2008, 270).

구조 중심적 이론들이 국제적 이주가 일어나는 경제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지만, 이들 이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개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동기를 지극히 일반화시켜 행위자의 선택을 구조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다 보니, 국제 이주자들의 구체적인 이동과정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전형권, 2008, 271). 또한, 구조 중심적 이론들은 주로 대규모 이주 또는 노동력 이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 소규모 집단의 국제이주를 포함한 국제이주의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김용찬, 2006, 90). 그리고, 국가를 자본의 대리자로 규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자본주의체제의 확산을 위해 자본과 상품의 흐름을 보호하거나 산업예비군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총원하는 등의 활동에 국한된다고 전제하여, 국제이주의 시작과 지속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이주민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김용찬, 2006, 90).

(3) 세계도시론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행위자중심 이론과 구조중심 이론은 공히 구체적 지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의 과정과 양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초국가적 이주 흐름의 구체적인 지리적 패

턴을 보면, 특정의 대도시를 향하는 이동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중심 이론과 구조중심 이론은 이러한 공간적 패턴을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닌다. 세계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초국가적 이주를 설명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논리는 Sassen(1991)과 Friedman(1986)에 의해 제시된 세계도시론이다.

프리드만과 사센에 의해 제기된 세계도시론에서 핵심적 주장은 경제적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의 기능과 형태는 세계적 규모에서 작동하는 경제적 메카니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프리드만과 사센은 세계도시의 출현을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 이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만(1986)은 자본이 국제화된 생산과 시장의 공간적 조직화를 위한 기지점으로 세계도시를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사센(1991)은 세계화의 결과로 경제활동이 지리적으로 분산하게 되면서 이들 분산된 활동들을 조직화하는 통제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이들 통제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중하여 형성되는 세계도시가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세계화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는 자본, 물자, 사람의 이동과 흐름이 점차 중요시되고, 또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조직되고 운용되는 경제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할 중추관리기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관리, 통제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중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통제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세계도시”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도시론은 세계적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초국가적 노동력 이동과 그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사센과 프리드만에 따르면, 세계도시는 국제 자본과 엘리트들의 집중지이면서, 동시에 국내외적인 이주 노동자들의 집합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금융과 기업활동의 중심지에 집중된 전문직종의 엘리트 집단들은 매우 고차의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소비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저차의 서비스 기능에(예. 빌딩 청소, 세탁, 식당, 건설 등)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이러한 일들에 종사할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을 국내, 국제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계도시론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유형의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세계도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에 물리면서, 세계도시는 사회적, 공간적으로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됨을 강조한다.

세계도시론은 다른 국제노동이동에 대한 이론들과 달리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구체적인 도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차원을 초국가적 이주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좀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도시로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기지점으로서의 세계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세계체제론과 같은 구조중심적 이론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중심적 이론이 지니는 비슷한 문제를 세계도시론도 지니고 있다. 즉, 초국가적인 이주와 정착,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집적거주지의 등장과 같은 도시공간의 변화를 거시적 구조의 변화, 혹은 경제적 동학과 필요의 결과물 정도로만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와 정착이 일어나는 보다 구체적인 장소적 맥락과 과정, 그리고 그 장소를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장소기반적 사회적 관계와 과정이 초국가적 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과하는 한계를 지닌다.

2) 정치-사회적 접근

경제적 동인과 전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적 노동력 이주를 설명하는 구조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요인과 기능적 필요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초국가적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특히, 많은 경우에서 초국가적 이주는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특정 국가 혹은 도시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치, 역사,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정치-사회적 접근이다. 여기에는 국제적 이주에 대한 1)

관계중심 이론과 2) 체계중심 이론이 대표적이다.

(1) 관계중심 이론

전형권(2008)에 따르면, 국제 노동력 이주에 대한 행위자 중심 이론과 구조 중심 이론은 국제 노동력 이주가 왜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이주의 흐름이 일단 확립되고 나서 형성되는 후속 이주의 사회적 조건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떻게 후속이주가 촉발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이주의 흐름이 영속화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관계중심 이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이론틀을 제시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사회자본론이 있다.

사회자본론은 국제노동력 이동을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면서,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집단, 조직과 단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 등에 주목하여 국제 이주를 설명한다. 특히, 국제적 이주에는 어떤 관계망이 필요한데, 사회적 네트워크, 이주 조직,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 등이 일종의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이주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전형권, 2008, 272). 그리고, 이주의 연결망이 형성되면 그것은 이주비용과 위험을 감소시켜 이주에 따른 순이익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에 국제적 이주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게 되고, 그 결과로 연쇄이주가 발생하게 된다(전형권, 2008, 273).

(2) 체계중심 이론

체계중심 이론은 국제이주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구조적 접근과 미시구조적 접근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제시된 이론이다. 특히, Kritz and Zlotnik(1992)은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이주자들을 교환하는 국가들 사이의 체계화된 이주의 흐름에 주목하면서(김용찬, 2006, 92), 두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인구학적 환경을 배경요인으로 하여 노동력을 송출하고 받아들이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이주체계를 형성함을 강조하였다(전형권, 2008, 275). 이 이론은 국제이주의 형성과 지속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정치, 사회와 인구상황의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이주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김용찬, 2006, 81). 그림 1에서 보이듯이, 국가들을 연결하는 이주의 흐름은 정치, 경제, 사회, 인구 차원의 국내상황에 의해 발생하지만, 동시에 이주 흐름자체에 의한 피드백과 조정이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본다. 이와 동시에 역사, 문화, 식민지, 기술적 차원의 다양한 연관들이 두 국가 사이의 국제 이주에 영향을 미친다(김용찬, 2006, 92).

이주체계 접근법이 지니는 장점은 기존 이론들과 달리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여, 국제이주의 형성과 지속을 하나의 분석틀 안에서 설명가능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김용찬 2006, 93). 또한,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의 이주 정책과 국제관계를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포함시킨 것은 기존이론들에서 등한시해온 국제이주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기존 이론들이 주로 국제이주의 한 축인 이주수용국가의 이주요인들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서 국제이주의 또 다른 축인 송출국가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던 반면, 이주체계접근법은 분석틀에서 이주송출국가를 국제이주의 중요한 축으로 포함시켜 이주수용국가와 송출국가가 동시에 분석단위로 고려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김용찬, 2006, 94)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은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구조적, 경제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국가의 정책, 역사적 조건 등과 같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론들 역시 초국가적 이주를 공간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한다. 특히,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를 국가로 상정하는 '국가중심적(state-centered)'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이 이루어지는 보다 구체적인 도시, 지역, 장소적 상황과 조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초국가적 이주는 단지 특정 국가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초국가적 이주의 상당수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의 특정 도시나 장소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또한, 국제적 이주자들이 특정 도시나 장소에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자신들만의

이주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의 이동과 이주의 커뮤니티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3) 초국가주의적 접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은 초국가주의적 접근이다. 초국가주의는 '한 국가 이상에서 활동하는 초국적 행위자들의 일상생활활동과 이들의 사회, 경제, 정치적 관계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장'으로 정의된다(Basch, Schiller and Blanc, 1994). 초국가주의 개념은 오늘날의 국제 이주자들이 형성하는 초국가적인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와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박경환, 2007).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수행되는 초국가적 실천과 그를 통해 형성, 유지되는 초국가적 연결망,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중적이고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이다. 초국가주의적 관점은 모국과 이주국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수 많은 이동에 의해 연결된 것으로 바라보며, 모국과 이주국의 연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결의 결과로 모국과 이주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즉, 초국가주의적 접근에서는 모국과 이주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동과 연결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고민경, 2009).

초국가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대부분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모국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ortes, Guarnizo and Haller, 2002; Miera 2008; Wong and Ng, 2002; Samers, 2002). 국제적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연결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이주에 대한 관계중심적 이론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은 관계중심적 이론이 이주자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제공하는 이주비용 감소와 같은 경제적 이점에 주목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초국

가적 이주를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초국가적 접근은 다양한 이주 행위자들이 미시적 수준에서 행하는 문화, 정치, 사회적 실천과 행위들의 초국가성에 주목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문화와 담론적 실천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끼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ppadurai(1996)는 사람, 미디어, 기술, 이데올로기, 금융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문화적 흐름이 국민국가를 벗어나,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전지구적 질서가 해체 및 탈구되어 새로운 경관-즉,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 미디어스케이프(mediascape), 테크노스케이프(technoscape), 이데오스케이프(ideoscape), 파이낸스스케이프(financescape)-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요컨대 초국가주의의 관점은 전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시경제의 구조적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일상에서 맺는 복잡한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관계와 이것들의 초국가적 연결됨을 더 중시하면서, 이러한 미시적 수준에서 수행되는 문화와 담론적 실천들의 초국가적 성격,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초국가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이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고민경, 2009).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이주 현상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자들의 적응과 정착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회-정치-문화적 장벽, 배제, 소외의 문제를 근대 국가의 시민권 개념이 지닌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이주민들과 소수자들에게 보다 포용적이고 열려있는 국가 공동체의 건설을 중요한 주제로 설정한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주민과 소수자에게 배타적인 근대적인 시민권 개념이 유연한 시민권, 지구적 시민권, 초국가적 시민권, 코스모폴리탄 시민권, 후기국가적 시민권 등과 같이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민권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강조한다(Leitner and Ehrkamp, 2006).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특히 시민권 개념이 전지구적

으로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재규정되고 있으며 점차로 많은 사람들이 초국가적인 연결망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권의 탈국가화 경향과 정체성의 탈영역화 경향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보다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과 정책을 보다 포용적으로 개혁하여 국가가 보다 다문화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초국가주의적 접근은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초국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주자들의 연계망과 그들의 초국가적 실천과 활동, 그리고 그로부터 형성되는 다중적이고 유연한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깊이 영향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초국가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연구들은 주체의 공간적 이동성과 그들의 비공간적 네트워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이들이 본국과 정주국에서의 장소기반적인 사회문화적 관계에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종종 간과한다(박경환, 2007). 특히, 이 연구들은 초국가적 연결의 발달로 인해 특정의 장소에 기반하여 영역화된 사회-문화-정치적 관계와 과정을 점차 덜 중요하게 만드는 '탈영역화'가 일어날 것이라 강조하면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공간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유연하고 초국가적인 시민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건설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공간적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여러 개념적 문제를 드러낸다. Leitner and Ehrkamp(2006)는 시민권의 탈국가화 경향과 정체성의 탈영역화에 대한 주장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시민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실천과 정책적 제언들이 여전히 국민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권의 탈국가화를 필연적으로 지향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고, 또한 보편적 인권의 진전도 여전히 국민국가의 보증과 촉진에 의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역적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정체성의 탈영역화에 대한 주장들이 지적하듯이 초국가적 이주민들의 실천과 정체성이 점차 보다 다중적이고 영토적 경계를 뛰어넘어 형

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국가나 지역적 차원에서 영역적으로 규정된 정치-사회-경제적 과정의 영향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Zhou and Tseng (2001)은 초국가주의를 종종 '탈영역적' 실천과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국가주의는 사실상 이민자들을 보내고 받는 국가들 사이의 영역화된 분업과 국지적 공동체 네트워크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국가적 이주나 초국가적으로 조직된 경제활동 등에서 사회적 관계가 국지화되는 과정이 초국가적인 네트워크와 실천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한다.

Kymlich(2003)는 다문화적 국가제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일상적인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다문화주의의 확장을 결과하지는 않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다문화적 국가 제도의 건설이 개인 간 관계에서의 다문화주의적 실천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을 통해, 다문화주의의 일상화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문화주의의 완성은 국가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서 공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게 된다. 일상적 실천의 영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분히 장소와 지역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비판적 검토 : 요약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가 공간적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은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이주 체제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건설이 정체성과 시민권의 탈영역적 재구성의 문제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Zhou(1998)가 지적하였듯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의 과정은 이민자 집단의 유인, 정착 등에 영향을 주는 연쇄 이주, 지리적 입지, 국지화된 경제적 조건, 사회적 하부구조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수준의 지리적 선택성을 가진다. 또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이민자 집단들에게 상이한 기회와 한계를 제공하며, 각 장소는 상이한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데 이로 인해 장소마다 이민자 공동체 형성의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이 처럼,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 그리고 다문화적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며, 따라서 지역과 장소의 특성은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가 펼쳐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

그렇다면,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Jessop, Brenner and Jones(2008)가 제시한 TPSN틀을 이용한다. 여기서 TPSN이란 사회-공간적 관계를 영역(Territory), 장소(Place), 스케일(Scale), 네트워크(Network)의 4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인식론을 지칭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1) 사회적 관계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차원과 결합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공간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이러한 사회-공간적 관계들은 (가) 어떤 경계를 중심으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영역, (나) 관계들의 국지화 및 지리적 뿌리내림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장소, (다) 수직적으로 계층화된 차별화를 통해 나타나는 스케일, (라) 연결성과 결절점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와 같은 4가지 핵심적 차원으로 구성된다(표 1 참조). 이 관점은 사회-공간적 관계와 과정에 대한 특정의 인과론적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해석의 방식을 제공하는 인식론이다.

필자는 이러한 4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가 초국가적 이주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표 1.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핵심적 차원들 (Jessop, Brenner and Jones 2008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회-공간적 관계의 차원	사회-공간적 구조화의 원리	사회-공간적 관계의 패턴
장소(Place)	접근성, 공간적 뿌리내림, 지역적 차별화	- 공간적 분업의 형성 - '중심(core)'과 '주변(periphery)' 사이에 형성되는 수평적 사회관계의 차별화
영역(Territory)	경계 만들기, 울타리치기, 구획화	- 내부/외부의 구분 - 영역 내부에 대한 외부의 구성적 역할
네트워크(Networks)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 횡단적이거나 '리좀적인(rhizomatic)' 차별화	- 연결의 결절지점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 위상학적 네트워크 내의 결절점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스케일(Scale)	위계화, 수직적 차별화	- 스케일간 분업의 형성 - '지배적(dominant)', '결절적(nodal)', '주변적(marginal)' 스케일들 사이에 형성된 수직적인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 다중스케일적 과정

바라본다. 이 장에서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어떻게 이들 각각의 사회-공간적 차원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장소(place)

Agnew(1987)는 장소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로 위치(location), 현장(locale), 장소감(sense of place)을 들고 있다. 먼저 위치라는 것은 장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는 모든 장소들이 지구 상의 특정 지점에 위치 지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소는 여기에 있고, 저 장소는 저기에 있다는 식의 위치적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장소가 특정 지점에만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배, 선박, 비행기 등도 여러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여행하면서 특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곳에 유대감을 느낀다는 측면에서 장소로 유형화될 수 있는데, 이들 장소들은 지표상의 한 지점에 묶여 있지 않고, 여러 곳을 떠 다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들은 항상 위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현장(locale)은 사회 관계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를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적 세팅을 의미한다. 추상화된 의미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들은 다양한 개인,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구체화된 행위

들은 도시, 건물, 길, 정원, 방, 책상, 창문, 벽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현장(locale)이고, 이러한 현장(locale)에 기반한 물질적인 환경이 장소이다. 마지막으로 장소감(sense of place)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한다. Agnew에 따르면, 이러한 3가지 기본적 요소를 바탕으로 특정의 위치에 놓여있는 공간적 세팅 위에서 인간들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특정의 의미가 그 공간적 위치에 부여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장소는 인간의 경험이 체화된 곳으로, 인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이다(Pred, 1984; Cresswell,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장소는 내부의 행위자들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장소를 둘러싼 내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하나의 과정적 결과물이다. 또한 장소에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창발되는(emerging) 독특한 사회적 구조와 그로 인한 맥락적 인과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소는 그것의 구성 요소들로 환원할 수 없는 나름의 역동성과 의미를 갖고 있고(Zhou, 1998). 이러한 장소의 역동성과 인과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계기는 특정의 장소에 '국지화된(localized)' 사건들과 행위자들이 그들의 '지리적

근접성(proximity)'을 바탕으로 그들 간의 관계를 해당 장소에 '공간적으로 뿌리내리는 것(spatial embedding)'이다. 이러한 공간적 뿌리내림은 더 많은 사건과 행위자들이 그 장소를 중심으로 '국지화(localized)' 하도록 유도하며, 이러한 과정의 누적적 결과는 '지역적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이다(Jessop, Brenner and Jones 2007). 즉, '국지화'와 '공간적 뿌리내림'의 과정이 장소의 역동성과 인과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 이주자들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고 정착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와 이동의 과정은 공간 위에서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기반을 둔 결절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은 그들이 터를 두고 있는 장소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리적 공간은 인간 행위자들의 경험이 반영된 장소가 되고, 인간은 이렇게 형성된 장소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Cresswell, 2004). 초국가적 네트워크와 이동의 결절지는 국제 이주자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그리고 그들과 토착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소화되고, 장소는 이를 통해 자신의 특성인 장소성을 드러내게 된다. 결국 초국가적 활동과 네트워크는 특정 장소에서 구성되고, 배치되고, 뿌리내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장소에서 '위치'지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mith, 200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이 장소에 뿌리내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나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 등장과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국제적 이주자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의 장소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그 장소가 역사적이고 장소특수적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그 장소에 뿌리내리면서 그를 바탕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고민경, 2009).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인 안산시의 원곡동은 반월공단과 시화공

단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지였던 곳이 3D 업종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기피현상, 임금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이용 전략,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지역을 떠남에 따라 주택시장의 침체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주거가 많이 공급되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서 고용된 외국인들이 원곡동 지역으로의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낮아진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중을 유발한 시발점이었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원곡동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지역 내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진입장벽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거주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시장, 구인과 구직의 네트워크, 서비스업 등이 발달하면서, 외국인들의 원곡동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태성이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원곡동으로 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박배균, 정건화, 2004).

원곡동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대표적인 곳은 서울의 이태원이다. 이태원은 원곡동에 비해 훨씬 인종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이들은 매우 다양한 문화-소비활동과 경제활동을 이태원에서 하고 있다. 고민경(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이태원은 특이하게도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출신의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식당들이 매우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2008년에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외국인투자기업데이터"에 의하면, 서울로의 외국인직접 투자를 건수를 기준으로 동별 분포를 보면, 이태원동이 서울시 전체 동 중에서 4위를 차지하는데, 이태원동에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위 2개 투자국이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이다. 이들은 이태원을 중심으로 자국과 무역을 하거나 자국 상품과 식품을 한국에 판매하는 초국가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태원이 지닌 장소특수적 조건 때문이다.

용산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지역으로 출발하여 80년대를 통해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관광객 대상의 쇼핑지역으로 성장한 이태원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 때문에 한국의 다른 어떤 곳 보다 문화적 개방성이 높은 곳이 되

었다. 이는 이태원의 문화적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국인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외국인들이 쉽게 이태원으로 오게 만들었다. 또한, 이태원 일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는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출신의 사업가들에 대한 이태원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중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을 기화로 이태원에 들어온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이주자들은 이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 지역에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는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이주자들의 초국가적 경제활동과 네트워크가 이태원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태원은 국제이주자들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유지, 작동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초국가적 장소'로 기능하게 되었다(고민경, 2009).

이 처럼 장소라는 사회-공간적 차원은 국제 이주자들이 특정한 결절지들을 중심으로 이주하고 정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장소라는 사회-공간적 차원의 중요성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들의 장소적 특이성에 대한 고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이주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장소 특수적인 조건들이 존재한다. 글로벌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국제적인 인구의 이동을 자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 특수적 조건에 의해 사람들의 장소적 의존성이 높을 경우(예를 들어, 국지화된 사회자본이 고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상호호혜와 사회적 연대의 관계가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거나, 장소적 차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들의 이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장소적 의존성이 낮고,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에 높은 정도로 연결되어 연쇄이주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사람들의 국제적 이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Faist, 2000, 292-301).

장소적 특이성은 국제 이주자들의 적응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 지역, 동네마다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개방성의 정도, 생활 및 주거 여건, 경제활동의 조건 등이 차별적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제 이주자들이 타국에서 정착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장소

마다 다를 수 있다. 영어가 쉽사리 통용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적은 이태원에서 국제 이주자들은 한국에의 정착에 덜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적고 문화적 다양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과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국제 이주자들은 적응과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2) 영역(Territory)

영역은 특수한 형태의 장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지역을 경계 지우고, 그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함을 통해, 사람, 사건,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들에 영향과 통제를 행사하려는 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Sack, 1986). 따라서, 영역 개념에는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지음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영역은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 사건, 그리고 관계를 영역 안의 것으로 포섭할 것인지, 어떤 것은 영역 밖의 것으로 배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영역의 공간적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 것인지가 영역을 구성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논하였듯이, 장소는 장소의 안과 바깥에 존재하거나, 그것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재형성된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장소는 여러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의 창발적 인과력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장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위자 중에서 그 장소에 대한 의존성과 고착적 이해가 강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이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장소의 영역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소의 특정 성질을 그 장소의 고유하고 진정한 것이라 강조하면서, 장소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그 장소의 내부라 불려진 것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함을 통해, 장소의 내부적 통일성과 대외적 배타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장소의 영역화를 초래한다(박배균, 2006; Cox, 2003; Harvey, 1989). 장소의 영역화는 외부자에 의해 구성되기도 한다. 특정 장소 외부의 행위자들이 그

장소에 대한 편견적 시선을 만들고, 그를 바탕으로 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와 소외를 행함을 통해, 내부와 외부, 혹은 우리와 타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장소를 영역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역은 매우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민족주의(혹은 국민주의)와 영역적 주권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는 매우 중요한 영역적 공동체이자 단위이다. 하지만, 영역은 그보다 크거나, 작은 지리적 단위에서도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보다 큰 차원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공동체도 그 공동체 내부와 외부를 차별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큰 영역적 단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하부 행정구역도 하나의 영역적 단위이며, 개인들의 집과 사유지도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란 이름 하에서 지켜지는 영역적 단위가 된다(Storey, 200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시민권과 관련되어 국가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영역성이다. 근대 국가 체제에서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영역성에 기반하여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따라서 국가 영역 바깥에서 건너 온 타자로 간주되는 이주민들은 이주국에서 정당한 법-제도적 권리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국가 시민권의 영역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앞서 논하였듯이, 초국가주의론자들이 근대 국가의 영역적 시민권 대신에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인 시민권의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 시민권의 영역적 배타성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형성된 영역성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과 관련된 영역적 차원은 국가보다 작은 공간적 스케일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거나 그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집중되는 장소는 인종적 편견, 문화간 충돌 등의 과정을 통해 공간적 경계 짓기가 이루어지는 영역적 장소로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도시의 할렘이나 차이나타운 처럼 특정 인종집단이 밀집해 있

는 종족 집거지가 주류 사회로 부터의 문화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영역적 배제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nderson(1987)은 캐나다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에 대한 연구에서, 서구 사회에서 차이나타운은 비위생적이고 문명화가 덜 된 중국인이 모여있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종,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중국인들을 타자로 취급하면서 이들을 공간적으로 고립시키는 영역적 배제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서구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정도의 영역적 배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국제이주자 밀집거주지인 안산시의 원곡동은 그 지역 바깥의 사람들로 부터 범죄의 위험이 높아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차별적인 인식을 받고 있다(박배균, 정건화, 2004). 조선족 이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가리봉동의 엔벤거리도 한국인들에 의해 위협하고 지저분한 곳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장소가 주변으로부터 점차 고립되는 영역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한성미, 임승빈, 2009).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장소의 영역화가 반드시 그 지역 바깥의 주류 사회의 편견과 배제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류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배척과 소외는 이주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거주지를 그들만의 배타적 공간으로 영역화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주류 사회에서 소외 당하고 차별 받는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낙서, 벽화, 건물, 조형물 등과 같은 가시적 경관을 만들기도 하고, 외부자들에게 불신과 경계의 시선을 던짐을 통해 거부감을 표출하여 영역적 경계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류 사회로 부터의 편견과 배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주자 공간의 영역성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다양한 인종 집단들 간의 경쟁과 결합의 과정으로 인해 영역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러 이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던 장소가 특정한 인종 집단에 의해 점차 독점적으로 전유되고, 이들의 문화, 경관, 사회적 관계 등이 다른 인종 집단의 것을 문화, 사회,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주변화하면서 초국가적 장소의 영역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 집단 간의 경쟁과 경합에 의한 영역화의 과정은 종종 이국적 문화의 상품화 가능성, 주류 사회 소비자들의 기호, 그리고 그에 편승한 장소 마케팅의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떤 우연적 계기를 통해 특정 인종 집단의 문화와 경관이 주류 사회 소비자들의 이국적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자극하여 인기 있는 소비 대상이 되었을 때, 그 인종 집단의 문화, 경관, 음식 등은 다른 인종 집단의 것들 보다 훨씬 자본에 의해 선호되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또 다시 이주자 거주지역을 상품화하려는 장소 마케팅의 욕망과도 결합되어, 특정 인종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주자 거주지역을 재현하고 상품화하도록 만들어, 다른 인종 집단의 문화와 정체성은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화의 과정이 심화되면, 상이한 문화를 지닌 집단 간, 혹은 상이한 인종 집단 간에 이루어지던 비공간적인 충돌과 갈등이 특정 장소의 영역적 점유를 둘러싼 공간적 충돌과 갈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의 이주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물, 물리적 조형물, 그리고 낙서와 그림과 같은 상징적 표현물을 그들을 집단 거주지에 만들고, 이러한 경관이 이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되고 재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 그러한 경관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될 경우, 이들의 문화적 혹은 인종적 정체성은 영역적 정체성으로 쉽게 전화되어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화의 과정은 상이한 문화 및 인종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이해증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문화사회의 건설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영역화의 과정은 주류 사회에의 동화를 통해 사라지거나 약화될 운명에 처해 있던 소수 이주자들의 정체성을 보호,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처럼 초국가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초국가적 이주의 증가와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탈영역화를 야기하고 강화하기 보다는,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과 지역적 차별화를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에서의 영역화의 과정은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다.

3) 네트워크(network)

네트워크는 공간의 연결성(connectivity)와 관계성(relationality)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과 사건들은 특정의 공간적 위치를 점하고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형성한다. 즉, 행위자들과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사회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간적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공간성에 대해 전통적인 지리학이나 공간과학에서는 장소나 도시와 같은 공간적 결절점(node) 사이의 네트워크적 위상관계에 주로 주목하였다면, 최근의 인문지리학에서는 행위자와 사건들 사이의 네트워크적 연결성이 어떻게 장소와 영역의 구성방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인문지리학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관계론적 전환(relational turn)”이라 불리는 학문적 경향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관계론적 전환”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경제적 구조주의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적 연결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들이 행위자들의 인식의 방식, 담론,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Dicken et al., 2001). 네트워크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 과정과 관계를 이해하려는 학자들은, 행위자들은 네트워크적 연결망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무한하게 상호 연결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역적 경계나 장소적 뿌리내림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개념으로 취급되기도 한다(Latour, 1993). Sallie et al.(2005)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적 접근을 바탕으로, 스케일적 담론이 상이한 크기의 영역적 단위들이 수직적, 위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비판하면서, 네트워크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사회-공간적 관계의 수평적 확장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수평적 확장성을 이 처럼 과도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네트워크의 무한한 연결성과 수평적 확장성이라는 일면적 특성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영역적 경계를 뛰어넘어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네트워크를 탈영역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동인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Painter, 2006). Painter(2006)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을 비판하면서, 네트워크적 연결성이 반드시 탈영역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체를 그 연결망에 참여시키면서 그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적 연결의 패턴을 보면 그 연결의 밀도와 빈도가 특정의 결점점(node)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불균등한 연결성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즉, 네트워크 상의 연결이 모든 곳에서 균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장소와 위치를 중심으로 강하게 국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강하게 연계를 맺는 기업들이 특정의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예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네트워크적 연결은 특정의 장소와 지역을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탈영역화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국지화되면서 영역화 또는 재영역화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네트워크의 2가지 상반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초국가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물자, 사람, 문화의 이동이 촉진되고, 초국가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국가나 지역적 스케일의 공동체적 영역성이 약화되어 탈영역화가 일어나는 측면이다. 국제적 이주를 사회적 연결망과 초국가적 흐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네트워크의 이러한 속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초국가적 이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쇄이주가 일어나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행위자들은 보다 탈영역화된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초국가적 이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주체성을 형성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한건수, 2008; 김현미, 2006).

하지만, 네트워크의 또 다른 측면은 네트워크가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국지화되는 경향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이 초국가적

이주자 네트워크에 의해 탈영역적으로 연결되고 이동하는 이주자들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의 장소와 도시를 중심으로 국지화되어 형성되는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에 의해 뿌리내려지고 영역화/재영역화되는 과정에 의해서도 깊이 영향을 받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1999)은 이들이 마석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유를 본국 출신 노동자들과 이들이 미사를 보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그들 간의 호혜적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울 가리봉동의 엔벡거리에 조선족이 모이는 것도 그 장소를 중심으로 국지화된 사회적 관계망이 조선족들 사이에 형성되어, 구인과 구직, 사업 등에 필요한 갖가지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성미, 임승빈, 2009). 따라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네트워크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초국가적 차원의 연결뿐만 아니라, 국지화된 연결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은 비공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위에서, 그리고 공간에 뿌리를 두고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이들 연결망은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4) 스케일(scale)

흔히 스케일(scale)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하나는 전통적 의미의 지도학적 스케일로, 지표면의 거리를 지도 위의 거리로 환산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자연 혹은 인문적 사건, 과정, 관계들이 일어나고 작동하는 지리적 범위를 뜻하는 작동의 스케일이다 (McMaster and Sheppard, 2004). 이 논문에서 스케일은 후자를 의미한다. 즉,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 사건, 과정, 행위자들의 실천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최근의 비판적 인문지리학에서 스케일에 대한 논의가 주는 중요한 함의는 스케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 인지와 관련된다. 장소나 영역의

차원이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적 차별화와 주로 관련이 된다면,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들은 수직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스케일에 따른 수직적 차별화에 대해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에서는 보다 큰 스케일의 과정이 보다 작은 스케일의 과정 보다 큰 추동력과 영향력을 가져서, 하향적인 위계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체계론이나 최근의 각종 세계화 논의에서 이야기되듯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국가나 로컬한 스케일의 과정을 추동하고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론을 비판하면서, 스케일 간의 수직적 관계를 하향적인 위계의 관계로 보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으로 이해하자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Park, 2005; 박배균, 2001).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글로벌 스케일이나(구조중심적 이론, 세계도시론, 초국가주의론 등), 국가 스케일(체제중심 이론,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에만 초점을 두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설명하려고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국제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기존 접근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자본주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 혹은 초국가적으로 펼쳐진 사회 네트워크의 작동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한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과 제도적 환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주 체제에 대한 이해가 글로벌 스케일에 초점의 둔 기존의 이론들을 충분히 보완해 주지도 않는다. 글로벌이나 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 이외의 다른 공간적 스케일에도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과정과 행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글로벌, 국가, 로컬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일어나고 작동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과정과 힘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차 글로벌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시스템, 시공간 압축으

로 인한 국제적인 차원의 이동성의 향상, 점차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협력과 조절의 활동,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교류의 증가 등과 같은 글로벌 스케일의 과정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국외 진출 혹은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과 정착에 영향을 주는 이민법, 노동시장 상황, 시민권을 둘러싼 논쟁 등과 같은 국가적 스케일의 제도,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들, 그리고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국지화, 공간적 뿌리내림, 그리고 이러한 초국가적 장소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영역화 과정 등에 영향을 주는 로컬한 스케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과정 등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인 패턴과 특징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학문적 과제가 된다.

예를 들어, 안산시 원곡동이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국제 이주자 밀집지역이 된 것은 국제 이주 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한 스케일의 경제적 조건과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 경제가 겪어 왔던 경제 재구조화의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이민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설명되지만, 그와 더불어 안산시 원곡동이라는 지역의 장소적 특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반월 및 시화 공업단지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이들 공업단지의 발달과 더불어 노동자 거주지로 성장하였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의 공급 등은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쉽사리 원곡동에 모여들게 만든 1차적 조건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이 원곡동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2차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시장, 구인과 구직의 네트워크, 서비스업 등은 원곡동을 외국인들의 단순히 거주지역에서 생활과 소비의 중심지로 변모시켰고, 이는 외국인들을 원곡동으로 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박배균, 정건화, 2004). 이처럼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과정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5)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상호결합과 증명

표 2.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주와 정착의 과정

사회-공간적 관계의 차원	이주와 정착의 과정
장소(Place)	- 이주 관련 정보 흐름과 연계망의 장소기반적 성격 -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 - '종족 집거지(ethnic enclave)'의 출현 - 종족 집단 별 정착지의 지역적 차별화 - 이주자들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적 조건의 특이성
영역(Territory)	- 이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영역성(시민권, 이민정책 등) - 이주민들과 그들 거주지에 대한 주류 사회의 편견과 배제, 그리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장소의 영역화 - 이주민 거주지역에서 다양한 이주 집단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소의 영역화 - 이주민 문화의 상품화와 장소 마케팅에 기인한 장소의 영역화
네트워크(Networks)	-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의 발달 - 연쇄이주 - 특정 지역에 국지화된 이주자들의 네트워크 - 국지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주자들의 장소적 뿌리내림
스케일(Scale)	-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국가, 지방, 도시, 개인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의 힘과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 국제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다중 스케일적 인식론

앞에서의 논의에서 주장하였듯이,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이라는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차원은 국제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표 2 참조). 그런데, 이들 4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혹은 특정 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가 다른 것에 비해 더 중요하고, 더 우위에 있거나 하는 관계에 있기 보다는, 이들 각각의 차원들이 서로 긴밀하게 중첩, 결합, 연계되면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의 영역적 경계를 넘어 온 이주자들은 그들이 도착한 국가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지화된 이주자 네트워크를 의존하여 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된다. 특정 장소에 정착한 국제 이주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장소에 그들 나름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과 관계들을 뿌리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뿌리내림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이주자들이 그 장소로 들어오게 되면, 주류 사회와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주류 사회로 부더의 소외와 배제를 받고, 그에 대해 이

주자들이 반발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주류 사회와 외부인들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종족 집거지"와 같이 국제 이주자들이 집중하여 모이는 장소에서 이주자들은 그들 끼리의 국지화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주국에서의 경제-사회적 기회의 창을 확대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초국가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주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초국가적 연결망의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적 이주를 더욱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 이주자들은 글로벌하거나 국가적인 스케일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과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거나 도시적 차원의 사회적 과정과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도 이주와 정착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처럼, 이들 4차원의 사회-공간적 관계들을 서로를 끊임없이 규정하면서 동시에 작동한다.

4. 결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논의들이 공간

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구체적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공간적 관점과 지리적 인식론이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기존 논의에서 강조되는 것 처럼, 초국가적 이주의 과정을 단순히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의 재구조화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되고, 탈영역화된 국제적 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만 볼 수도 없으며, 국가 단위의 정치, 사회,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이주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없음을 강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의 건설이 정체성과 시민권의 탈영역적 재구성의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들이 초국가적 이주자들의 공간적 정착과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장소, 영역, 스케일, 네트워크의 사회-공간적 차원의 작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문화 공간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 더 진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1.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은 특정의 장소에 뿌리내려진 사회-경제적 관계와 과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2. 국제 이주자들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과정과 그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은 종종 공간적으로 표출되어, 영역화된 장소의 출현을 결과하기도 한다.
3.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전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보다는, 글로벌, 국가, 로컬 등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고 활동하는 힘과 관계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필요하다.
4. 네트워크를 초국가적 흐름과 연결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영역적 공동체와 정체성을 해체하는 힘으로만 이해하면 안되고,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연결을 국지화하고 더 나아가 영역화/재영역화하는 힘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

- 1)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란 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존재론적으로 근대 국가 체계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면서, 국가를 사회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상정하는 접근법을 의미한다(Brenner, 2004, 74).

문헌

-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 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석사학위 논문.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권 3호. 81-106.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 819-849.
- 박경환 2007. 초국가주의 뿌리내리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77-88쪽.
- 박배균 2001. 규모의 생산과 지구화의 정치. 공간과 사회 16.
- 박배균 2006. 도시와 정치. 김인, 박수진 (편) 도시 해석. 푸른길.
- 박배균, 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공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쪽.
-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한건수 2008. 본국으로 귀환한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나와 나이지리아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7. 225-268.
- 한성미, 임승빈 2009. 소수민족집단지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엔벤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6), 81-90.

-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 Unwin, Boston.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sch, L., Schiller, N. G. & Blanc, C. S.,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Gordon & Breach Science Publishers, Amsterdam.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ox, K., 2002, *Political Geography: Territory, State, and Society*, Blackwell, Oxford.
- Cresswell, T., 1996, *In Place/Out of Place: Geography, Ideology and Transgress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Dicken, P., Kelly, P. F., Olds, K. & Yeung, H. W., 2001, Chains and networks, territories and scales: towards a relational framework for analysing the global economy, *Global Networks* 1(2): 89-112.
- Faist, T.,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Clarendon Press, Oxford.
- Friedmann, J., 1986,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1), 69-84.
- Harvey, D., 1989, *The Urban Experience*, Blackwell, Oxford.
- Jessop, B., Brenner, N. &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Kritz, M. and Zlotnik, H. 1992, Global Interactions: Migration Systems, Process and Policies, In Mary Kritz, Lin Lean Lim and Hania Zlotnik (eds.) *International Migration Systems: A Global Approach*, pp.1-16, Clarendon Press, Oxford.
- Kymlich, W., 2003,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 147-169.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ester Wheatsheaf, Hamel Hempstead.
- Leitner, H. and Ehrkamp, P., 2006, Transnationalism and migrants' imaginings of citizenship,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615-1632.
- Marston, S. A., Jones, J. P. & Woodward, K., 2005, Human geography without scal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416-432.
- McMaster, R. B. and Sheppard, E., 2004, Introduction: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In E. Sheppard and R. B. McMaster (eds.)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Nature, Society, and Method*, 1-22, Blackwell, Oxford.
- Miera, F., 2008, Transnational Strategies of Polish Migrant Entrepreneurs in Trade and Small Business in Berl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4(5), pp.753-770.
- Mitchell, K., 2004, Geographies of identity: multiculturalism unplugge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8(5): 641-651.
- Painter, J., 2006, *Territory-network*, Paper presented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 Park, B-G.,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397-414.
- Portes, A., Guarnizo, L. & Haller, W., 2002, Transnational Entrepreneurs: An Alternative Form of Immigrant Economic Adapt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pp. 278-298.
- Pred, A. R., 1984, Place as Historically Contingent Process: Structuration and the Time-Geography of Becoming Plac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4(2): 279-297.
- Sack, R.,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ers, M., 2002, Immigration and the Global City Hypothesis: Towards an Alternative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2), pp. 389-402.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torey, D., 2001, *Territory: the Claiming of Space*, Pearson, Harlow.
- Wong, L. and Ng, M., 2002, The Emergence of Small Transnational Enterprise in Vancouver: The Case of Chinese Entrepreneur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6(3), pp. 503-30.
- Zhou, Y., 1998, How Do Places Matter?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Ethnic Economies in Los Angeles and New York City, *Urban Geography* 19(6): 531-553.
- Zhou, Y. and Tseng, Y-F., 2001, Regrounding the 'Ungrounded Empire': localization as the geographical catalyst for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1(2): 131-153.
- (접수: 2009.8.12, 수정: 2009.9.18, 채택: 2009.10.16)